

영암군 지난해 공모사업 37건 선정

국·도비 1029억 등 1576억 확보
각종 수상 실적도 47건 달해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영암군이 2025년 한해 37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47건의 수상으로 정책 경쟁력을 입증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총 37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029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576억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407억원 ▲수도도시 조성사업 350억원 ▲2025 지역활력타운 183억원 등에 선정되며 지역 주거 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 대통령상 ▲2025년 시·군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2025 로컬콘텐츠페스타 대상 등을 받았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SA)을 획득했다. 분야별 수상실적에는 ‘행정·정책’ 12개, ‘경제·재정’ 7개, ‘문화·관광’ 5개, ‘보건·복지·안전’ 16개, ‘농촌·지역활력’ 7개로 분류된다. 행정·정책 분야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 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이, 경제·재정 분야에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과 전라남도 일자리 경제 한마당 투자유치 최우수상이 눈에 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우수기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상이,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 대통령상과 질병관리청 결핵예방의 날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포함됐다. 농촌·지역활력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어워드 공공투자 최우수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이 성과로 꼽힌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공모사업 선정과 다양한 분야 수상실적은 전 부서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2026년에도 영암군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의 '방문의료 서비스'.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광군, 통합돌봄 본격 운영

영광군이 질병·부상·장애·노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광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통합돌봄사업은 보건의료와 요양, 건강관리, 생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양원 등 돌봄 시설 입소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으로,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퇴원 후 재가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담 후 서비스를 연계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방문 의료’, ‘특수 돌봄’, ‘맞춤형 영양 도시락’, ‘병원 동행’, ‘안심 돌봄 간병비 지원’, ‘돌봄 치유 프로그램’,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지원’ 등이다.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무안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새단장

무안군이 일로읍 회산백련지 내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을 새롭게 단장해 재개장했다. 이번 새 단장은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을 목표로 방갈로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카라반은 도색 등 재정비를 거쳐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1만2054㎡ 규모의 오토캠핑장은 방갈로 4~6인용 9동과 카라반 4~6인용 7동을 비롯해 데크사이트 10면, 일반사이트 13면으로 구성돼 있다. 화장실과 샤워장, 취사장 및 바비큐장, 음수대, 정자 등 다양한 공동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캠핑장 이용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과 사용료 등 자세한 사항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오토캠핑장을 가족 중심의 레저·휴식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하영미 무안군 관광과장은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은 백련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고, 도심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동물농장과 놀이시설이 인근에 있어 재이용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세월굴

“도서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최선 다할 것”

노광일 신안경찰서장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 4대 신안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노광일(54) 서장은 “군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민은 물론 경찰간 원활한 소통을 문화를 조성해나가면서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서장은 “신안군은 섬이 많은 지역으로 치안

사각지대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직원이 사명을 다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장성 출신인 노 서장은 광주정 과학수사계장을 비롯해 국제범죄수사대장, 강력범죄수사대장, 치안지도관을 역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기자 노트

목포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무게

장 봉 선
서부취재본부 차장

목포시청 안팎에서 요즘 자주 들리는 말이 있다. “조석훈 권한대행이 정말 바쁘다”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7월 부임 이후 그의 일정표는 좀처럼 여유가 없어 보인다. 주변에서는 “입술이 터진 채로 회의를 이어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4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통해 행정을 몸으로 배운 인물이다. 그의 시정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화려한 수사보다는 ‘기능’, ‘재정’, ‘조직’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과도하게 벌이기보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정의 기본을 다지는 일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목포시의 현실은 냉정하다. 2024년 기준 예산은 약 1조 1660억원. 하지만 복지 예산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시가 정책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1110억원가량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며 재정 압박은 더욱 커졌다. 이는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 전국적으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었다.

다행히 올해는 약 380억원의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오며 한숨은 돌렸다. 조 권한대행이 이 재원을 대하는 태도는 조심스럽다. 재정을 풀어 단기 성과를 내기보다, 지출 구조를 정비하고 재정의 체질을 먼저 바로잡겠다는 기조다. “재정은 단단하게”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눈에 띄는 점은 행정 조직에 대한 접근이다. 조 권한대행은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해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정, 그리고 민생

과 직결되는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민생과 복지에 대한 언급도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의 삶을 살피는 정책,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정책을 재정 안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차분히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역 산업 현장까지 ‘체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다.

미래 이야기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다. 해상풍력과 친환경 선박 산업, AI와 디지털 기술, K-GIM 국가전략클러스터 등은 단기간 성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목포의 산업 지형을 바꾸기 위한 준비에 가깝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머무르고 다시 찾는 도시’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 공간과 교통, 의료와 돌봄 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이다. 원도심 재생, 임성지구와 서산·온금지구 정비,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체계 개편, 국립의대 설립과 통합돌봄 추진 등은 단순한 개발 공약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 체력을 키우는 과제다.

조석훈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과도한 자신감도, 과도한 조심성도 아닌 균형’이다. 민선 9기를 앞두고 있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그는 다음 단계를 대신 결정하기보다, 다음 단계를 제대로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결국 평가는 시민의 몫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목포시정은 화려한 말보다 숫자와 구조, 그리고 현장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은 냉정하게, 행정은 움직이게.

권한대행 체제가 던지는 이 메시지가 시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조용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jbs@kwangju.co.kr

해남군 쇼핑몰 ‘해남미소’ 지난해 매출 274억

전년 대비 13% 늘어

해남군의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사진>가 지난해 27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해남미소는 2024년 242억 원에 비해 32억원 이상 증가하며 13%가량 매출이 늘었다.

소비위축으로 대형 유통채널 등도 축소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성장세는 전국 지자체 쇼핑몰 운영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품목별 매출 현황을 보면 절임배추가 전체 매출의 약 42%(114억 7200만원)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해남미소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쌀과 잡곡 57억 9000만원, 각종 가공식품 52억 3000만원, 고구마 13억 1500만원, 채소품목 12억 7800만원 등을 기록했다.

해남미소의 지속적인 성장에 지자체 직영 쇼핑몰이라는 구조적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운영 방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남군은유통·마케팅·고객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고객 응대, 주문·배송 관리, 상품 품질 관리를 일원화해 소비자 신뢰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미소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